



KIEP 기초자료
22-07

2022년 9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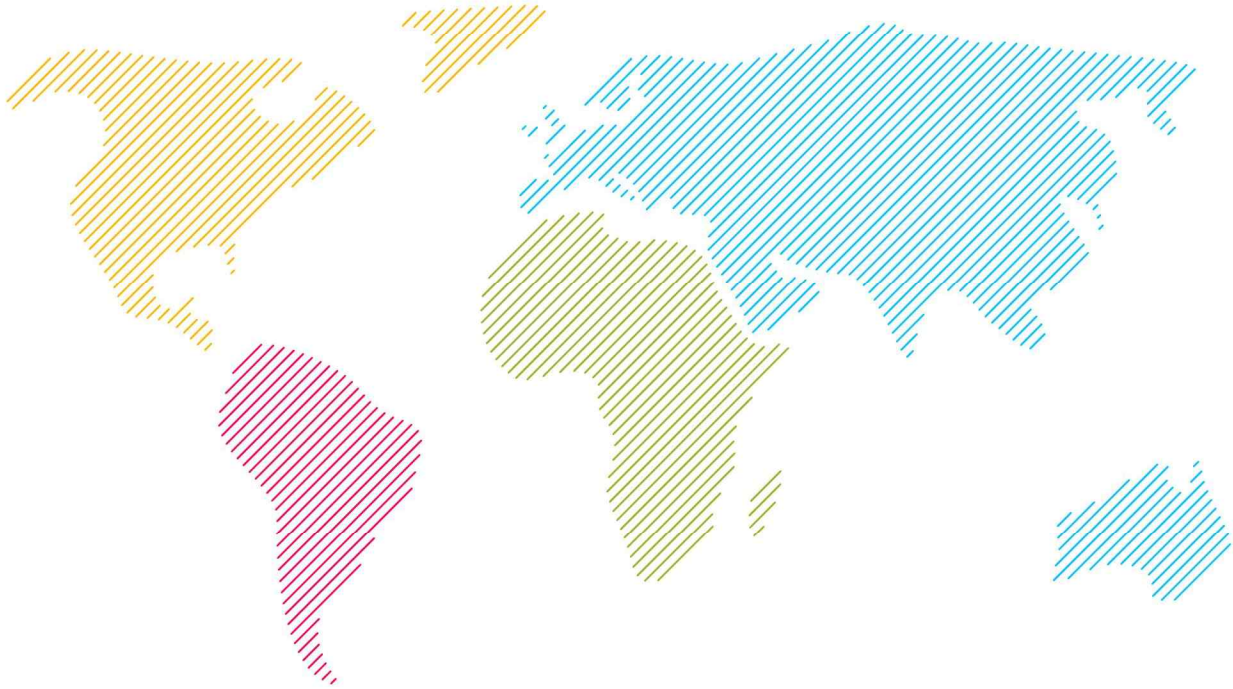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044-414-1272)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요약

- ▶ 최근 미국이 AUKUS, IPEF, PBP 출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지정학·외교·경제적 측면에서 태도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은 태도국과 남남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외원조를 통한 공동 발전과 번영을 강조해왔으며, 안보 분야를 포함하여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위기 극복,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보급 확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음.
- ▶ 미국, 호주,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의식해 최근 태도국에 대한 ODA 확대, 소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외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태도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재구축하고자 재정 지원 확대 약속과 더불어 미국 대사관 추가 설립, 안보협력 강화, 인적 교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
 - 호주는 최근 3년간 차관 중심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알바니즈 신임 총리 역시 ODA 증대 등을 통한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취임 직후부터 신임 외교장관을 태도국에 파견하고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태도국과의 외교관계 재건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가운데 미국과 공동으로 호주의 AIFFP에 참여하였으며,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함.
- ▶ 이러한 주요국의 전략경쟁 속에서 태도국은 전반적으로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과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경제발전, 기후변화, 불법어업 근절 등 도서국으로서의 존속이 달린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태도국과의 외교적 기반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 수립 △대화 채널 체계화 및 정례화 △ODA를 활용한 소다자협력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태도국에 대한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급 회담 정례화 △PIF 참석 △대사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한 대화 채널 유지·강화가 필요함.
 - 또한 태도국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호주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태도국의 당면 과제인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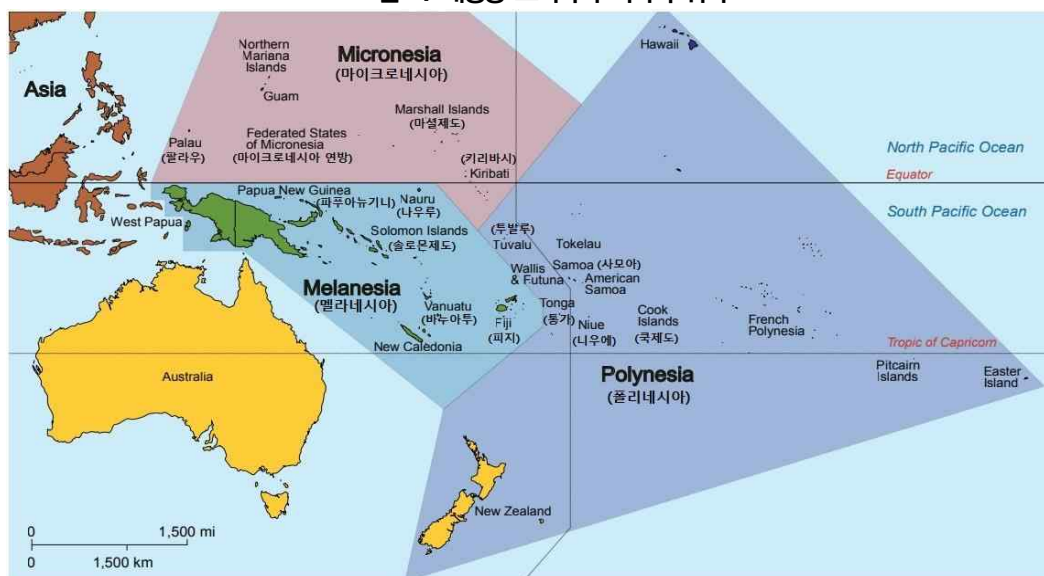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협력 동향
 - 가. 중국의 협력전략 및 특징
 - 나.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
 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 가. 미국
 - 나. 호주
 - 다. 일본
 4. 태평양 도서국의 입장
 5. 시사점
- 부록
-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UKUS, IPEF, PBP 출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¹⁾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의 주요 협력 대상국은 미국, 호주, 일본 등이었으나, 최근 중국이 경제·외교적 지원을 앞세워 태도국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2021년 9월 호주·영국과 함께 삼각 안보협력체인 AUKUS(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를 구성하였고, 2022년 5월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 경제·안보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출범한 데 이어 6월에는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인 ‘푸른 태평양 협력체(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를 발표함.
- 한편 중국은 2022년 4월 솔로몬제도와외의 안보협정 체결을 발표한 데 이어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월 26일부터 10일간 태도국 8개국²⁾을 순방하며 총 11개국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
- 2022년 7월 개최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³⁾’에서는 미국과 호주가 참여하여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주피지 중국대사관 소속으로 알려진 중국 관료 2명이 공식 초청을 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려다 피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는 등⁴⁾ 최근 태도국이 주요국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그림 1. 태평양 도서국의 지리적 위치



자료: Searight, Harding, and Tran(2019), p. 3 재인용

- 1) 본고에서 ‘태평양 도서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중 14개(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키리바시, 나우루,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니우에, 사모아, 쿡제도, 톤가, 투발루)의 독립 국가를 가리킴.
- 2)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톤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를 차례로 방문함.
- 3) 1971년 출범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은 태도국 역내 최고 정치·경제협력체로, 총 18개국의 역내 회원국(16개 태평양 도서국, 호주, 뉴질랜드)과 18개국의 역외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음. PIF 홈페이지, “The Pacific Islands Forum”(검색일: 2022. 7. 25).
- 4) “Pacific forum signals reset with Australia, U.S. as China hovers”(2022. 7.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7. 20).

■ 태도국은 규모가 작은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등한 투표권 행사로 인한 국제사회 내 영향력 △세계 주요 해상 수송로인 태평양 항로가 위치한 지리적 요건 △광대한 규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한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 보유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 위치 등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됨.

- 14개 태도국의 총인구는 약 1,220만 명으로 볼리비아(세계 79위)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토 면적의 합계는 약 52만 km²로 태국(세계 58위)과 비슷하고, GDP(PPP)는 약 530억 달러로 세계 175위 정도에 해당하는 등⁵⁾ 작은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속하는 38개 UN 회원국 중 12개의 태도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제사회 내 영향력이 큼.
-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태평양 항로는 3대 주요 교역 항로 중 하나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요 해상 무역 통로이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 등 제3국으로의 교역을 위해 마셜제도 등을 경유지로 삼고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14개 태도국이 보유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전 세계의 약 14%인 1,910만 km² 정도이며,⁶⁾ 태평양 지역 참치 어획량이 전 세계의 68%(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⁷⁾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함.
- 더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가 하와이에, 미국 공·해군 기지가 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대가 마셜제도의 콰절런 환초(Kwajalein Atoll)에 위치하며, 현재 미국 국방부가 팔라우에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태평양은 미국의 주요 군사 요충지임.⁸⁾

■ 이번 보고서에서는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협력 동향

가. 중국의 협력전략 및 특징

■ [중국의 태도국 전략] 지난 40여 년간 중국은 지정학·외교·경제적 측면에서 태도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음.

5)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검색일: 2022. 7. 27~28); 14개 태도국 중 파푸아뉴기니가 각각 78.6%(인구), 87.5%(국토 면적), 69.5%(GDP(PPP))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6) Vivid Maps 홈페이지(검색일: 2022. 7. 26).

7)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2021), p. 145.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p. 1.

- 중국은 1970년대부터 태도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외교관계를 공식화하고, 2006년 원자바오 총리의 피지 방문을 계기로 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왔음.
 - 중국은 1990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 참여
 - 2006년 4월 원자바오 총리는 피지에서 개최된 ‘중국-태평양 도서국 경제개발협력 포럼’의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태도국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이며,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이 이 지역 국가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전략적 결정”이라고 언급⁹⁾
- 중국은 △평등 대우 △상호 존중 △공동번영 △개방·포용의 협력 원칙하에¹⁰⁾ 정치·안보, 무역·투자, 개발협력, 해양경제, 환경, 보건·의료, 농어업, 교육, 관광, 문화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왔음.¹¹⁾
- 중국이 태도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한 데는 △해양전략 추진 △외교·경제적 영향력 확대 △남남협력 강화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확보 등의 전략적 목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 1980년대 초 중국은 해상 방어라인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해양안보 전략¹²⁾을 제시했으며,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태도국이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¹³⁾
 - 2019년 9월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단교 후 각각 중국과 복교·수교 관계를 맺으면서 2022년 현재 14개 태도국 중 중국의 수교국이 총 10개국으로 확대¹⁴⁾¹⁵⁾

표 1.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수교 현황

상대국	수교일	비고
피지	1975. 11. 5.	
사모아	1975. 11. 6.	
파푸아뉴기니	1976. 10. 12.	
키리바시	1980. 6. 25. 2019. 9. 27. (복교)	• '03. 11. 29. 키리바시-대만 수교 • '19. 9. 20. 키리바시-대만 단교
바누아투	1982. 3. 26.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1989. 9. 11.	
룩제도	1997. 7. 25.	
통가	1998. 11. 2.	

9) 中国政府网(2006. 4. 5), 「加强互利合作 实现共同发展——在“中国—太平洋岛国经济发展合作论坛”首届部长级会议开幕式上的讲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10) 2022년 5월 왕이 외교부장은 솔로몬제도 순방 기간 중 앞으로 태도국과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7), 「王毅谈中国发展同太平洋岛国关系的“四个坚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1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4), 「中国—太平洋岛国合作事实清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12) 중국 해군사령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을 역임한 리우화칭(刘华清)은 1982년 해군 역량 강화 및 단계별 해상통제권 확장 전략을 제시했는데, 2010년까지 쿠릴 열도-일본 열도-대만-필리핀 해역-인도네시아 군도를 잇는 제1도련(岛链)까지 제해권을 확립하고 2020년까지 일본 혼슈-오가사와라 제도-마리아나 제도-괌-팔라우를 포함하는 제2도련까지 해상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며 2040년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美 해군의 지배력을 억제한다는 것임. 「中国拟在7年内夺第2岛链制海权 变东海为内海」(2013), 『环球网』(6월 25일),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22).

13) 박영준(2013), pp. 378~379.

14) 중국은 대만의 수교 관계를 와해시키고 자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에 따라 수교 상대국에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요구함. 허재철 외(2019), pp. 117~119.

15) 2022년 현재 대만이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중 4개국이 태평양 도서국(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에 해당함.

상대국	수교일	비고
니우에	2007. 12. 12.	
솔로몬제도	2019. 9. 21.	• '19. 9. 21. 솔로몬제도-대만 단교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6), 「中国同基里巴斯的 关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2); 中国政府网(2019. 9. 20), 「外交部: 高度赞赏基里巴斯与台湾“断交”并将同中国复交的决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2); 「中华人民共和国和所罗门群岛建立外交关系」(2019), 「新华网」(9月 21日),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2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시진핑 시기의 협력 특징]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미중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태도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태평양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두 차례 태평양 도서지역 내 수교국 방문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과 태도국 간 전략적 협력과 공동 번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옴.¹⁶⁾
- 특히 중국은 해양·우주·네트워크 강국 건설을 비롯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있어 태도국을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음.¹⁷⁾
 - 중국은 태평양 도서 지역 내 10개 수교국과 모두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함.¹⁸⁾
- 최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역시 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질적으로 역내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¹⁹⁾
 - 한편 중국은 남태평양 지역이 악의적인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중국과 태도국 간의 협력은 어떠한 국가를 겨냥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함.²⁰⁾

■ [다자협력체제 구축] 역대 중국 지도부는 태도국을 직접 방문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교류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해 중점 협력 분야 및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해왔음.²¹⁾

- 2006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피지 방문 당시 중국과 태도국 간 경제·무역 분야의 최고위급 대화체인 ‘중국-태도국 경제개발협력 포럼’이 출범했으며 2013년 11월과 2019년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개최됨.²²⁾²³⁾
 - 원자바오 총리는 제1회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기업의 對태도국 투자 장려 △최빈개발도상국의 대중 수

16) 시진핑 주석은 2014년에 피지, 2018년에 파푸아뉴기니를 공식 방문함.

17) 陈晓晨, 常玉迪(2019), p. 30.

1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4), 「中国—太平洋岛国合作事实清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1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2), 「王毅: 美国“印太战略”必然是一个失败的战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2).

2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7), 「王毅谈中国发展同太平洋岛国关系的“四个坚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21)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니우에 등 태도국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양측 고위급 및 직급별 인사의 상호 왕래를 통한 교류·협력력을 확대해왔음.

22) 2013년 11월 제2회 포럼(중국 광저우)에는 당시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2019년 10월 제3회 포럼(사모아)에는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胡春华)가 참석함.

23) 2006년 제1회 포럼 개막식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 대표단도 참석함.

출품에 무관세 혜택 제공 △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의약품 제공 및 의료진 파견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발표함.²⁴⁾

- 가장 최근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태도국을 순방하며 총 11개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제2회 중국-태도국 외교장관 회의’²⁵⁾에 참석함(2022. 5. 26.~6. 4).²⁶⁾
 - 중국 측은 국가별 고위급 회담에서 △개발도상국 권익 보호 △남남협력 강화 △공동 번영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으며, 태도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대체로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인프라 구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 표시 △‘일대일로’ 적극 참여 약속 등을 언급함.²⁷⁾
 - 2022년 5월 30일 제2회 외교장관 회의 및 기타 공식 석상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향후 태도국과의 공동 발전을 위해 △개발 원조 지속 △‘일대일로’와 태도국 발전전략의 연계 추진 △전염병 퇴치 지원 △기후변화 공동 대응 △UN 등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디지털경제 등 신항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전략적 협력 목표를 밝힘.²⁸⁾
- 상기 외교장관 회의 종료 후 중국은 「태도국과의 상호 존중과 공동 발전에 관한 중국의 입장문」을 발표함.²⁹⁾
 - 15개의 협력 원칙 및 비전을 비롯하여 정기 협의체 지속 운영, 농업 발전, 재난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 협력, 항공편 개통, 인력 양성 등 24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함.
- 그 밖에 중국과 태도국은 경제무역연합위원회, 농업부 장관회의, 어업협력 발전포럼 등 다방면에 걸친 양자·다자 협의체를 설립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무차관급 특별회의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음.

■ [지역 협력 및 협력센터 설립]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태도국과의 교류·협력을 도모해왔으며, 최근 중앙정부는 중점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광둥성, 산둥성, 푸젠성, 저장성과 같이 연해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는 태도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³⁰⁾
 - 일례로 광둥성의 경우 2022년 5월 기준 태도국에 18개의 생활 인프라(학교, 도로, 전염병 예방치료센터, 체육시설, 문화예술센터 등) 건설·보수 지원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민생 개선에 필요한 각종 물자 기증, 코로나19 방역 물자 지원,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물자 지원, 각종 박람회·전시회·포럼을 통한 교역 촉진, 인적·문화·스포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지속해왔음.³¹⁾
- 2022년 5월 왕이 외교부장은 ‘제2회 중국-태도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

24) 中国政府网(2006. 4. 5), 「加强互利合作 实现共同发展——在“中国—太平洋岛国经济发展合作论坛”首届部长级会议开幕式上的讲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25) ‘중국-태도국 외교장관 회의’는 2021년 10월 출범한 다자협의체임.

26) 태평양 도서국 수교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차례로 회담을 진행함.

27) 김영선(2022), 「중국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동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3).

2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30), 「王毅: 中国和太平洋岛国的全面战略伙伴关系必将行稳致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6. 5), 「践行大小国家一律平等外交理念 助力太平洋岛国加快发展振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4).

29)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사전에 제안한 안보·경제협력 합의문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동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관련국간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태도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김영선(2022), 「중국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동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3)).

3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5), 「广东、山东、福建三省发布与太平洋岛国合作成果清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31).

31) 广东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2022. 5. 25), 「广东省与太平洋岛国合作成果清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31).

곤 감축 △농업 △재해 방지 △균초(菌草) 기술 보급³²⁾ 등 6개 분야별 협력 센터를 중국과 태도국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³³⁾

- 중국 내 이미 설립된 비상물자 비축·기후변화 대응·빈곤 감축 관련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태도국 민생 개선 및 인재 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³⁴⁾
- ‘중국-태도국 비상물자 비축고’ 개소(‘21. 12,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국-태도국 기후변화 대응 협력 센터’ 개소(‘22. 4, 중국 산둥성 라오청시), ‘중국-태도국 빈곤 감축 및 개발협력 센터’ 개소(‘22. 7,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나.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

■ [경제협력] 정부간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과 태도국 간 무역 및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음.³⁵⁾

- [무역]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태도국의 수교국 간 교역 총액은 1992년 1억 5,300만 달러에서 2021년 53억 달러로 연평균 13% 증가함.³⁶⁾
 - 2021년 기준 태도국 중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파푸아뉴기니(약 40억 달러)이며, 다음으로 솔로몬제도(약 4억 9,000만 달러), 피지(약 4억 5,000만 달러) 순임.³⁷⁾
- [투자] 중국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외직접투자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2~20년 동안 중국의 태도국 수교국에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2020년 기준 26억 1,572만 달러로 2012년의 8억 4,071만 달러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³⁸⁾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태도국 중 중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은 파푸아뉴기니(2020년 약 18억 달러)이며,³⁹⁾ 주요 투자 분야는 △광산 △소매 △인프라 △임업 등임.⁴⁰⁾

■ [개발협력]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대외원조를 통한 공동 발전과 번영을 강조해왔음.⁴¹⁾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태도국에 대한 원조는 무상 또는 차관 형식의 인프라(도로, 수력발전소, 체육시설, 정부청사 등) 건설 프로젝트 추진, 기금 설립을 통한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기술 원조 등이 주를 이룸.⁴²⁾

32) 균초 기술이란 버섯 재배 과정에서 원목 대신 풀을 사용하는 중국 특유의 기술로 재생 가능 자원 활용, 지속가능 발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빈곤퇴치 측면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균초 기술 보급을 확대해왔음.

3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30), 「王毅：中国愿打造同岛国合作的六个新平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4).

34)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고를 통해 통가의 화산 피해 복구 및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함.

35) 중국과 태도국의 교역·투자 데이터는 중국 해관총서 및 상무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니우예를 제외한 태도국 수교 9개국 데이터의 합계임.

3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4), 「中国—太平洋岛国合作事实清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37)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3).

3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외(2021), 「2020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157.

39) Ibid.

40)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외(2021),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巴布亚新几内亚」, p. 13.

41) 秦升(2019), p. 1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30), 「王毅：中国和发展中国家实现共同发展繁荣将使世界更加公平、和谐、稳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42) Ibid.; 정지원 외(2011), p. 160.

- 2000년대 들어 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확대해왔으며, 주요 분야는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기초 인프라 건설 △농업 분야의 기술 원조 △경찰 관련 장비·교육·인력 지원임.⁴³⁾
- 양측의 무역, 투자, 관광, 인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목적으로 2000년 10월 중국은 ‘중국-PIF 협력 기금’을 조성⁴⁴⁾
- 2006년 원자바오 총리는 ‘제1회 중국-태도국 경제개발협력 포럼’에서 태도국에 향후 3년간 30억 위안 규모의 우대차관 제공 등의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정치적 조건 없는 원조’를 약속한 바 있음.
- 중국의 對태도국 원조 규모는 2009~16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2019년 기준 태도국의 최대 ODA 공여국인 호주의 약 20% 수준임.⁴⁵⁾
 - (‘09년) 6,357만 달러 → (‘16년) 2억 8,730만 달러 → (‘19년) 1억 6,939만 달러
- 시진핑 지도부 시기 태도국에 대한 원조의 초점은 남남협력과 ‘일대일로’ 전략의 틀에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빈곤 퇴치,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같이 태도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최근 들어 다양한 재정 지원 계획이 발표됨.
 - 2021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차원에서도 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강조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는 솔로몬제도 전역에 161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중국수출입은행이 6,6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20년 이상 1%의 금리로 제공할 계획임.⁴⁶⁾⁴⁷⁾
 - 2022년 8월 25일 중국정부는 ‘중국-PIF 협력기금’ 산하 PIF 사무국에 108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2050 블루 퍼시픽 전략’을 이행하는 데 활용될 예정⁴⁸⁾

■ [안보협력] 2022년 4월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을 공식화했으며,⁴⁹⁾ 이는 미국, 호주, 일본이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됨.

- 협정문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류 보급 및 연료 공급을 위한 중국 선박(해군 군함 포함)의 솔로몬제도 부두 시설 이용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 군·경찰 파견 요청 가능 △자연재해 발생 시 중국의 지원 약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⁵⁰⁾
- 중국은 양국간 안보협정 체결에 대해 △사회질서 유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인도적 지원 △자연재해 대응 등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며 솔로몬제도의 국가안보 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⁵¹⁾ 중국의 군사기지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함.⁵²⁾

43) *Ibid.*, pp. 18~19.

4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中国同太平洋岛国论坛的关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6).

45) Lowy Institute Pacific Aid Map(검색일: 2022. 8. 5).

46) “China funds Solomon Islands’ telecoms deal after signing security pact”(2022. 8.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26).

47) 2023년부터 상기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며, 그중 48개 기지국은 2023년 11월 솔로몬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에서 개최되는 ‘퍼시픽 게임(Pacific Games)’ 이전까지 건립할 계획임. 또한 중국은 동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48) PIF(Pacific Islands Forum) 홈페이지, “RELEASE: US \$1.08m for Pacific in China-Pacific Islands Forum annual development cooperation ceremony”(검색일: 2022. 8. 26).

49) 2022년 3월 30일 양국 정부의 비준에 따라 양측 대표가 양자 안보협력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으며, 4월 19일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서명 소식을 공표함.

50) “Australia election produces South Pacific rethink”(2022. 5.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5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4. 19), 「2022年4月19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5).

■ [재난재해·기후변화] 중국은 지진, 화산 폭발, 해수면 상승 등 태도국이 직면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재생에너지 협력, 친환경 발전 전략 공유 등을 지속해옴.

- 2006년부터 중국은 태도국과 지진으로 인한 재난재해 감소를 위한 협력에 착수했으며 사모아, 바누아투, 피지 등에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2022년 1월 통가에서의 대규모 화산 폭발과 쓰나미 발생 당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긴급 구호를 제공함.
- 중국정부는 △2019년부터 ‘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저탄소 발전’을 주제로 훈련·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국기업의 태도국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 장려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물자 공급 등을 추진해 왔음.

■ [보건·농업] 중국은 태도국의 의료 서비스 보급 확대 및 국민 건강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왔음.

- 중국은 태도국에 의료진 파견, 의료장비 및 의약품 기증, 병원 건립 지원,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은 태도국에 백신 및 방역 물자를 제공하고 ‘중국-태도국 방역 협력기금’을 설립하여 재정적 지원도 병행함.
- 중국은 태도국의 농업 생산력과 식량안보 수준 향상을 위해 농업 전문가 파견, 시범 농장 건설, 시범 농가 육성, 농작물 우량종 보급,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해왔음.
 - 2001년 중국 최초의 균초 기술 대외원조 시범기지를 파푸아뉴기니에 설립

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태도국과의 협력에 한동안 소홀했으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본격화되자 ‘아시아 회귀 (Pivot-to-Asia)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냉전 종식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자 미국은 태도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발을 호주와 뉴질랜드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음.⁵²⁾
- 태도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미국과 태도국과의 관계는 한동안 교착단계에 머물렀으나, 오

5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4. 25), 「2022年4月2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5).

53) Searight, Harding, and Tran(2019), pp. 13-14.

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편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확대되면서 태도국에 대한 외교적 관심이 다시 제고됨.

- 미국은 1994년 폐쇄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태도국 지역 사무소를 2011년 10월 파푸아뉴기니에 재설치함.
-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정부의 전략을 계승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 포함된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경제협력] 미국은 태도국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지원을 의식하며 최근 재정 지원 확대 약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음.

- 미국 국무부는 2019년 10월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태평양 약속(Pacific Pledge)’을 발표하며 태도국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고, 2020년에는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함.
 - 2020년까지 미국의 태도국 ODA 지출 규모는 최대 2억 5,000만 달러 규모 내에서 정체되어 왔음(그림 2 참고).
 - 2019년 발표된 1억 달러 지원 중 6,300만 달러는 USAID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계획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피지,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등에 USAID 직원 파견 확대를 약속함.⁵⁴⁾
 -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환경 회복력 강화(1,000만 달러) △전력 인프라 및 인터넷 연결 확충(3,050만 달러) △거버넌스 실현(1,500만 달러) △해양 안보 강화(750만 달러) △안보협력 강화 △사이버 관련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됨.⁵⁵⁾
 - 2020년에 추가 발표된 지원 내용에는 3개 부문(pillar)인 △경제(6,980만 달러) △거버넌스(370만 달러) △안보(510만 달러)와 관련한 세부 지원이 포함됨.⁵⁶⁾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자유연합국(FAS: Freely Associated States)인 3개국(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과 맺은 자유연합협정(CFA: Compacts of Free Association)⁵⁷⁾의 일부 조항이 만료를 앞둔에 따라,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ompact Negotiations)’을 임명하며 협정 재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 CFA 협정 내용 중 경제지원에 관한 조항이 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는 2023년, 팔라우와는 2024년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미국과 3개국 간의 재연장 논의가 2020년 5월 시작되었으나 2021년에 중단됨.
 - 미국 국무부는 2022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CFA 협정은 미국과 FAS 3개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역내 안보, 안정, 번영에 있어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밝힘.⁵⁸⁾
 -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현재 FAS의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 △미국의 과거 역사(미국의 태도국 내 핵 실험)에 대한 책임감 △태평양 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하여 FAS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의지를 표명함.⁵⁹⁾

54) U.S. Department of State(2019. 10. 3), “U.S. Engagement in the Pacific Islands: UN General Assembly Update,”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7. 28).

55) Ibid.

56) U.S. Department of State(2020. 10. 1), “U.S. Engagement in the Pacific Islands: 2020 Pacific Pledge,”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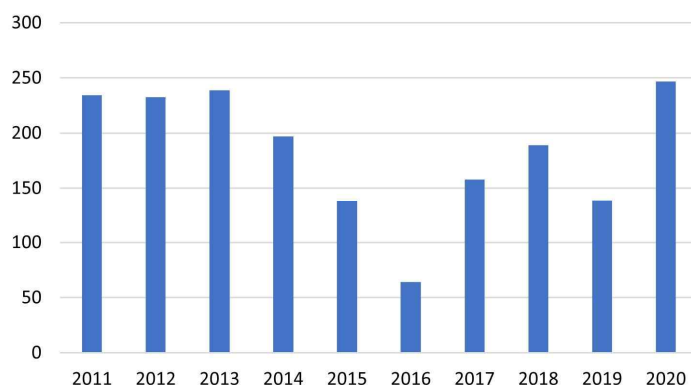
57) 자유연합협정(CFA)은 자유연합국(FAS) 3개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미국에 자국의 국방·안보에 관한 결정권 부여 및 자국 내 미군기지 설치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간 CFA는 1986년, 미국·팔라우 간 CFA는 1995년에 각각 발효됨.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pp. 1-4.

58) U.S. Department of State(2022. 3. 22), “Announcing the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ompact Negotiation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1).

- 2022년 4월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이 발표된 이후, 미국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7월 PIF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태도국의 생계수단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현재 수준의 약 3배에 달하는 연 6,0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밝힘.⁶⁰⁾

그림 2. 미국의 대태평양 도서국 ODA 총 지출액 추이(2011~2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검색일: 2022. 8. 12).

■ [외교/안보] 바이든 행정부는 태도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재구축하고자 미국 대사관 추가 설립, 안보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PIF에 공식 초청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회의에 참석해 연설함으로써 태도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줌.
- 2022년 2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피지를 방문하고, 태도국 정상과의 화상회의에서 29년 만에 솔로몬제도 내 대사관 재개설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코로나19 백신 지원, 불법어업 근절 지원 등을 약속함.
- 2022년 4월 19일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이 발표된 이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가 이끄는 고위급 사절단이 4월 22일부터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를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관계 방안을 논의함.⁶¹⁾
 - [솔로몬제도] 양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발족 동의, 미국 대사관 설립,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프로그램 착수, 병원선(Mercy hospital ship) 파견, 코로나19 백신 추가 보급, 기후변화·보건·인적교류 관련 이니셔티브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함.

5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summary.

60) The White House(2022. 7. 12), "Fact Sheet: Vice President Harris Announces Commitments to Strengthen U.S. Partnership with the Pacific Island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7. 29).

61) The White House(2022. 4. 22), "Readout of Senior Administration Travel to Hawaii, Fiji, Papua New Guinea, and Solomon Island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1).

-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국방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를 논의함.
- [피지] 피지 총리 면담과 미국-피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를 개최함.
- 이어 7월 PIF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키리바시와 통가 내 미국 대사관 신규 설립 계획을 추가로 밝히고, 사상 최초로 미국 PIF 특사(U.S. Pacific Islands Forum Envoy)를 임명하는 등 태도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음.
-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을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에 재파견할 것을 약속하고, 피지 내 USAID 지역 사무소 재개설 계획도 밝힘.
- 백악관은 2022년 6월 24일 호주·일본·뉴질랜드·영국과 함께 태도국이 당면한 우선 과제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이니셔티브인 PBP(Partners in the Blue Pacific) 출범을 발표함.
- 미국은 태도국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연계성(connectivity)과 교통 △해양 안보와 보호 △보건 △변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태도국이 중시하는 원칙(지역주의, 주권, 투명성, 책임감)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⁶²⁾

나. 호주

■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도국과의 관계가 호주의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태도국의 정치·경제·안보 분야 등에 가장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음.

- 호주는 태도국과 동일하게 대양주에 속해 있으며 호주 동북부에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와 각각 약 158km, 1,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근접함.⁶³⁾
- 호주는 태도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세워 왔으며, 2016년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전 총리가 태도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스텝 체인지(Step-Change)’를 발표한 데 이어 2018년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총리가 이를 계승 발전시킨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up)’ 정책을 발표함.
- 모리스 전 총리는 ‘퍼시픽 스텝업’ 정책이 “태평양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장(a new chapter in relations with our Pacific family)”을 열 것이라고⁶⁴⁾ 태도국에 대한 관여정책을 강조함.
- ‘퍼시픽 스텝업’ 정책은 △ODA 증대 △‘태평양 인프라 금융제도(AIFFP: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도입 △최대 3년간 호주 농촌 지역 등에서 일할 수 있는 ‘태평양 노동자 제도(Pacific Labor Scheme)’ 확대 △대사관 신규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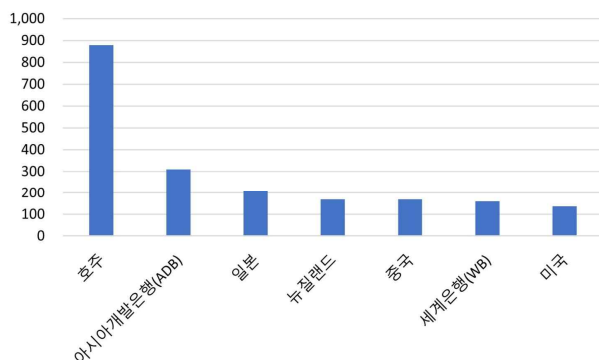
62) The White House(2022. 6. 24), “Statement by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4).

63) Google Map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9).

64) “Australia pledged to ‘step up’ in the Pacific amid growing Chinese influence, but are we on track?”(2020. 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

그림 3.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원조 공여국/기관(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Lowy Institute Pacific Aid Map(검색일: 2022. 8. 5).

표 2.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수출 대상국				주요 수입 대상국			
순위	국가	금액	비율	순위	국가	금액	비율
1	싱가포르	1,959.2	16.3	1	중국	5,265.6	21.4
2	EU	1,848.0	15.4	2	싱가포르	5,052.2	20.6
3	중국	1,577.3	13.1	3	한국	3,838.5	15.6
4	일본	1,345.0	11.2	4	호주	2,334.8	9.5
5	호주	1,104.0	9.2	5	EU	2,120.9	8.6

주: 1) 나우에와 쿡제도는 통계자료 부재로 미포함.

2) 비율은 12개 태도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각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12개 태도국의 대한민국 수입액 중 마셜제도가 95.5%를 차지함.

자료: IMF DOTS(검색일: 2022. 8. 30).

■ [경제협력] 호주는 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 중심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새로 취임한 알바니즈 총리는 ODA 증대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있음.

- ODA가 주요 수입원인 태도국에 있어 호주는 최대 ODA 공여국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로서 태도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음(그림 3, 표 2 참고).
- 호주는 전통적으로 무상원조 중심의 ODA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나, 2018년 차관 비중이 높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인 '태평양 인프라 금융제도(AIFFP)'를 새롭게 발표함.
 - '호주판 일대일로' 사업으로 불리는 AIFFP는 태도국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약 20억 5,000만 달러(30억 호주달러)의 차관과 약 3억 4,000만 달러(5억 호주달러)의 무상원조로 구성되어 있음.⁶⁵⁾
 - AIFFP하에 현재(2022년 8월 기준) 총 12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 △피지 공항 △마이크로네시아 연방·키리바시·나우루 해저 광케이블 △파푸아뉴기니 태양광 발전, 전력 인프라, 항구, 도로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송전 시스템 △팔라우 해저 광케이블 구축 등이 있음(표 3 참고).⁶⁶⁾
 - 미국과 일본이 2건의 AIFFP 광케이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호주·미국·일본·인도의 각 개발금융기구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에 동의⁶⁷⁾하는 등 호주는 AIFFP를 통해 소다자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2022년 5월 총선에서 9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신임 총리도 ODA 확대를 통한 대태도국 협력 강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2022~23년 회계연도⁶⁸⁾의 총 ODA 예산이 전년대비 2% 소폭 증가한 한편(2021~22년 약 31억 달러 →

65)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AIFFP)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3).

66) Ibid.

67)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2022. 5. 27),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and Agency Leaders of Australia, India, Japan, and USA Agreed to Enhance Collaboration to Overcome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hallenges Facing Indo-Pacific Region,"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3).

2022~23년 31억 4,000만 달러), 태도국(동티모르 포함)에 대한 보건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 편성 예산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함(2021~22년 약 1억 2,000만 달러 → 2022~23년 2억 3,000만 달러).⁶⁹⁾

- 알바니즈 총리는 모리슨 전 총리의 기후변화에 관한 미온적인 태도와 ODA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증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관계 강화를 강조해왔음.

표 3. 호주 AIFFP 사업 목록

연번	지원 대상국	사업명	사업내용	금액	비고
1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Laitim Hauslain Project	배전망 구축	8,580만 호주달러	
2		Papua New Guinea Ports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gram	항구 시설 재건	5억 8,000만 호주달러	
3		Wau and Sepik Highways	도로 재건 및 유지·관리 지원	7,220만 호주달러	
4		Markam Valley Solar Plant	태양광 발전소 건설	(논의 중)	
5	팔라우	Palau Solar Plant Investment	태양광 시설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2,930만 호주달러	
6		Palau Submarine Cable Branch System Project(PC2)	광섬유 해저 케이블 구축	1,460만 호주달러	미국, 일본 참여
7	피지	Airports Fiji	공항 유지·관리 및 인프라 구축	6,840만 호주달러	
8		Nadi Flood Alleviation Project	홍수 관리 모델 구축	500만 호주달러	
9	나우루	Nauru Airport Refurbishment	공항 시설 재건	4,000만 호주달러 (이 중 AIFFP로 3,000만 호주달러 지원)	
10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키리바시, 나우루	East Micronesia Cable	해저 케이블 건설	(논의 중)	미국, 일본 참여
11	동티모르	Front End Engineering Design(FEED)	해저 케이블 건설, 통신시장 법률 및 규제 분석	150만 호주달러	
12	솔로몬제도	Tina River Hydropower Transmission System	송전시설 구축	3,020만 호주달러	

자료: AIFFP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2).

- [외교/안보] 알바니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신임 외교장관을 태도국에 파견하고 PIF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태도국과의 외교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68) 호주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로, 2022~23년 회계연도는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임.

69) Australian Government o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artnerships for Recovery: Australi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검색일: 2022. 8. 2).

- 페니 왕(Penny Wong) 외교장관은 지난 4월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국 순방(5. 26.~6. 4.)을 의식한 듯 2022년 5월 23일 취임 직후 약 한 달간 4개국(피지, 사모아, 통가, 솔로몬제도)을 잇달아 방문함.
 - 왕 외교장관은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태평양 외교정책 역사상 최대 실수”라며⁷⁰⁾ 모리슨 전 총리를 비난한 바 있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태도국을 순방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력 의사를 밝힘.
 - [피지] 5월 26일 왕 외교장관의 피지 방문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 직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피지와와의 파트너십을 재차 강조하면서 △‘태평양 노동자 제도’ 개혁을 통한 호주 내 노동 기회 확대 △ODA 외 추가 인프라 재정 지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약속함.
 - [사모아] 6월 2일 방문에서 △태도국의 인간개발지수 향상 △2023년 해안 경비정 지원 계획을 밝힘.
 - [통가] 6월 3일 △ODA 확대 △호주 내 통가인 일자리 기회 확대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무역 증진 등을 발표함.
 - [솔로몬제도] 6월 17일 방문 중 △협력관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인프라 지원 △호주 내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확충 등을 논의함.
- 6월 말 팻 콘로이(Pat Conroy) 호주 국제개발 및 태평양부(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acific) 장관은 피지에서 개최된 한 컨퍼런스에서 △태도국의 군사 훈련을 위한 국방학교(defense school) 설립 △어업수역 항공 감시를 위한 재정 지원금 2배 증액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호주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힘.⁷¹⁾
- 더블러 알바니즈 총리는 2022년 7월 12~14일 개최된 PIF에 참석하여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선언에 동참하면서 태도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관계 개선에 주력함.
 - 태도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호주의 모리슨 전 총리와 의견 충돌이 있었음.

다. 일본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태도국을 위임통치한 것을 계기로 역사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태도국의 경제·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등을 위임통치한 것을 계기로 현재에도 많은 일본계 주민이 태도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 등에서는 일본계 대통령이 배출되는 등 일본계 주민들의 정계 활동도 활발함.
- 일본정부는 1996년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태도국이 일치단결하여 일본을 지지한 것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태도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바 있음.⁷²⁾

70) “Solomon Islands-China pact is worst policy failure in Pacific since 1945, Labor says”(2022. 4.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

71) “Australia commits to Pacific islands defence training as China plans rival meet”(2022. 6.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

72) 현대송(2013), p. 365.

- 더불어 일본은 광대한 EEZ를 보유한 태도국을 해양·광물·산림자원 등의 주요 공급처이자 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천연자원 및 상품의 해상 수송로로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⁷³⁾
- 일본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총리는 2016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 공식 발표하고, 2018년 외무성이 이를 외교정책으로 공식화하는 등 태도국을 포함한 태평양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경제협력]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ODA 자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편, 미국과 공동으로 호주의 AIFFP에 참여하는 등 소다자 협력에도 동참하고 있음.

- 일본은 호주와 ADB에 이어 태도국의 제3대 ODA 공여국이자 4대 수출 대상국임(그림 3, 표 2 참고).
 - 일본의 대태도국 ODA 지출액이 2011년 약 1억 4,2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2억 8,9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며⁷⁴⁾ 주요 공여국 중 유일하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일본은 호주의 AIFFP 사업 중 태도국의 해저 광케이블 건설 프로젝트 2건에 미국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호주·미국·일본이 3,000만 달러 규모의 팔라우 해저 광케이블 건설을 위해 첫 3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460만 달러, 호주는 AIFFP를 통해 900만 달러를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과 수출보험공사(NEXI)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힘.⁷⁵⁾
 - 2021년 12월 호주·미국·일본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나우루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해저 광케이블을 건설하는 3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함.⁷⁶⁾

■ [외교/안보] 일본은 태도국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양자·다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으며,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다자협력 이니셔티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1997년부터 태도국과 3년 주기로 정상회의(PALM: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를 개최하고 있음.
 - 특히 2012년에 열린 제6차 PALM 회의에 미국을 초청하고 공동성명에 해양안전보장을 도모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중국과 센카쿠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시기에 대중 전략의 일환으로 이 협의체를 활용하기 시작함.⁷⁷⁾
-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9차 PALM 화상회의에 총 19개국⁷⁸⁾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은 새롭게 ‘태평양 유대 정책(Japan’s Pacific Bond Policy)’ 기조를 발표하며 다섯 가지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법치주의(rule of law)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복원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확대를 제시함.⁷⁹⁾

7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 “Why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re important to Japan?”(검색일: 2022. 7. 28).

74) OECD Stat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2).

75) U.S. Department of State(2020. 10. 29), “The United States Partners with Australia and Japan to Expand Reliable and Secure Digital Connectivity in Palau,”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7. 4).

76) Ministry for Foreign Affairs(2021. 12. 12), “Improving East Micronesia telecommunications connectivity,”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7. 4).

77) 박영준(2013), p. 378.

78) 일본과 14개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참석함.

- 일본은 회의 개최 전인 6월 29일~7월 1일 태도국과 양자 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양자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함.
- 2022년 4월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 발표 이후 4월 26일 일본정부는 솔로몬제도에 우에스기 켄타로(Uesugi Kentaro) 외무대신정무관(parliamentary vice-minister for foreign affairs)을 파견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실현을 위해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등 태도국 외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연이어 5월 8일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외무상은 피지와 팔라우를 방문하여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자간 협력 강화에 동의함.
- 더불어 일본은 6월 24일에 출범한 PBP에 미국·호주·뉴질랜드·영국과 함께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표 4. 최근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교류·협력 일지

날짜	주요 내용
4. 19.	중국,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 발표
4. 22.	미국 고위급 사절단, 솔로몬제도·파푸아뉴기니·피지 방문
4. 26.	일본 외무대신정무관, 솔로몬제도 방문
4. 28.	중국, 태평양 도서국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센터 개소(중국 산둥성 랴오청시)
5. 8.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피지·팔라우 방문
5. 23.	미국 주도 IPEF 출범
5. 26.	중국 왕이 외교부장, 10일간 태평양 도서국 8개국 순방 및 11개국과 고위급 회담 개최 호주 페니 윙 외교장관, 피지 방문(피지, IPEF 참여 발표)
6. 2.~6. 3.	호주 페니 윙 외교장관, 사모아·통가 방문
6. 17.	호주 페니 윙 외교장관, 솔로몬제도 방문
6. 24.	미국·호주·일본·뉴질랜드·영국, PBP 출범 발표
7. 12.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 PIF 포럼 참석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PIF 포럼 화상 연설
7. 20.	중국, 태도국 빈곤 감축 및 개발협력 센터 개소(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8. 19.	중국, 솔로몬제도 이동통신망 구축 차관 제공 발표

자료: 각국 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4. 태평양 도서국의 입장

■ 태도국은 [그림 1]과 같이 인종·지리적 기준으로 세 지역(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요 파트너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음.

- 마이크로네시아는 미국령인 괌과 북마리아나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CFA를 체결한 3개국(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과 키리바시, 나우루가 포함된 지역으로 2020년 미국의 대태도국 ODA 총 지출액 중 93% 이상이 CFA 체결 3개국에 집중되는 등⁸⁰⁾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키리바시와 나우루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더 가까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⁸¹⁾
- 멜라네시아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가 포함된 지역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관계 등으로 인해 호주가 정치·경제·안보협력에 있어 최대 파트너 국가임.⁸²⁾
- 폴리네시아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가 위치한 지역으로 뉴질랜드가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임.

■ 태도국은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한편 전방위적 다자간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과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은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국 순방 기간 중 다양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방위적 다자간 협정에는 도달하지 못함.
 - 중국은 외교장관 회의 전 △법률집행 △경찰훈련 △사이버 안보 △데이터 통신 △전자통관 시스템 △자유무역지역 △기후변화 △보건 △수산업 분야 등 협력 내용이 포함된 ‘중국-태평양 도서국 공동 개발 비전(The China-Pacific Island Countries Common Development Vision)’과 ‘5개년 액션플랜’ 초안을 각 태도국에 전달함.
 - 해당 다자간 협정 초안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솔로몬 제도가 공개적으로 협정을 지지함.⁸³⁾
 - 그러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은 회의 전 각국 정상에 편지를 보내 중국과 좋은 우정(great friendship)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협정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 전체를 중국에게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라며⁸⁴⁾ “이번 협정이 중국과 서방 간 새로운 냉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pre-determined) 이번 공동서명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힘.⁸⁵⁾
 - 니우에 총리는 중국이 제시한 협정이 역내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태도국의 기존 계획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⁸⁶⁾

80) OECD Stat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2).

81) Searight, Harding, and Tran(2019), p. 3.

82) Ibid.

83) “United States and China set to be excluded from Pacific Islands Forum meeting to avoid ‘distraction’”(2022.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9).

84) “China wants 10 Pacific Nations to sign a major cooperation agreement”(2022. 5.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10).

85) “China is pursuing a Pacific-wide pact with 10 island nations on security, policing and data - report”(2022. 5.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9).

86) “China, Pacific Islands unable to reach consensus on regional pact”(2022.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8).

- 태도국은 역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피지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태도국은 ‘합의(consensus)’를 가장 중시한다고 언급하였으며,⁸⁷⁾ 사모아 총리는 “우리의 입장은 역내 국가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힘.⁸⁸⁾
- 특히 태도국은 오래전부터 강대국의 경쟁구도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발전 기회를 모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⁸⁹⁾
 - PIF 의장국인 피지 총리는 2022년 7월 PIF 회의에서 역내 이슈를 논의하는 데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당초 어떠한 대화 상대국도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⁹⁰⁾ 개최 직전 미국 해리스 부통령을 대화 상대국 중 유일하게 초청함.
 - 중국은 PIF 회의 2주 전 사절단 파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⁹¹⁾ PIF 회의 중 주피지 중국대사관 소속으로 밝혀진 2명의 중국인 관료가 공식 초청을 받지 않고 해리스 부통령 화상 연설에 참석해 피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함.
 - 솔로몬제도 총리는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이후 자국을 방문한 미국 사절단에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과 장기 군대 주둔 등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으며,⁹²⁾ 호주와 일본 사절단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함.
 - 피지는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IPEF가 공식 출범하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미국 주도의 다자경제협력체 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솔로몬제도는 8월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6,6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에 합의하기도 함.

■ 태도국은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경제발전, 기후변화, 불법어업 근절 등 도서국으로서의 존속이 달린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팔라우와 투발루는 강대국간의 경쟁에서 태도국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⁹³⁾
- 특히 PIF 본부가 위치하고 전통적으로 태평양의 권력 중심지로 평가되는 피지의 총리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 기간 중 “우리는 권력에 과도하게 집중한 강대국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하다”⁹⁴⁾라고 함.
- 태도국은 지리적 위치, 작은 인구와 경제 규모, 도서국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련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2020년 키리바시 주민이 세계 최초로 UN의 ‘기후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태도국은 이번 51차 PIF 회의에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87) Ibid.

88) “Why the sparsely-populated South Pacific islands have become the next US-China contest”(2022. 6.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9).

89) Benjamin Charlton(2022. 6. 22), “Pacific Islands will resist Chinese influenc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7. 30).

90) “United States and China set to be excluded from Pacific Islands Forum meeting to avoid ‘distraction’”(2022.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9).

91) “US, Australia launch major Pacific counter-bid to China’s rising influence”(2022. 7.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5).

92) The White House(2022. 4. 22), “Readout of Senior Administration Travel to Hawaii, Fiji, Papua New Guinea, and Solomon Island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1).

93) “China, Pacific Islands unable to reach consensus on regional pact”(2022.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8).

94) “China’s Pacific Push Is Backfiring”(2022.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

5. 시사점

■ 태도국 내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주요국간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일례로 2020년 중국의 국영 통신 기업이 태도국 내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Digicel 인수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정부는 자국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Telstra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2022년 7월 Telstra가 Digicel의 태평양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함.
 - 호주정부는 전체 인수 자금 16억 달러 중 13억 3,000만 달러를 호주수출금융(EFA: Export Finance Australia)을 통해 Telstra에 제공함.
- 아울러 현재 호주가 솔로몬제도에 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8월 중국이 통신 타워 구축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⁹⁵⁾ 호주-파푸아뉴기니 간 안보협정 체결 추진이 알려지는 등 태도국 내 영향력 확대를 두고 주요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

■ 한국에 있어 태도국은 주요 해상교역의 통로가 위치한 지역이며, 주요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래 협력 파트너이자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한국은 미국 등 제3국으로 선박을 수출하기 위한 중요한 해양 수송로로 마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⁹⁶⁾ 광물 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뉴기니와 교역을 확대하여 천연가스, 원유, 구리 등 주요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음.
 - 2021년 한국의 전체 탱커(HS 890120) 및 화물선(HS 890190) 수출액에서 마셜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1.8%와 18.9%임.⁹⁷⁾
 - 2021년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HS 271111), 원유(HS 270900), 구리(HS 260300) 순으로, 각 품목의 전체 수입액에서 파푸아뉴기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1%, 0.3%, 1.8%로 미미한 만큼⁹⁸⁾ 향후 양국간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큼.
-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관계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태도국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태도국과의 협력 기반 및 외연 확대를 위해서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요국 모두 오래전부터 태도국에 대한 중장기 협력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 정책을 추진해온 데 반해, 한국정부는 태도국에 대한 협력전략이 부재함.
- 우호적인 외교관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95) “China funds Solomon Islands’ telecoms deal after signing security pact”(2022. 8.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26).

96) 외교부(2014), p. 305.

97) 무역협회 DB(검색일: 2022. 8. 30).

98) *Ibid.*

차원의 태도국 중장기 전략과 맞춤형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태도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태도국 간 외교관계·인적교류가 교착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급 회담 정례화 △PIF 참석 △대사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유지·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21년 4차 회의에서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동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가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태도국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고위급 인사가 태도국 방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그동안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태도국 현지에서의 회의 개최와 한국 고위급 인사의 태도국 방문을 통해 인적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한국은 2008년 출범한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매년 ODA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더 나아가 PIF의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서 PIF 회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태도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태도국과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이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 지역에 한국 대사관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태도국 내 한국 대사관은 총 2곳으로 멜라네시아 지역인 파푸아뉴기니와 피지에 위치해 있음.
 - 한편 호주는 14개국, 일본 9개국, 중국 7개국, 미국 6개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태도국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호주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태도국의 당면 과제인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20년 한국의 총 ODA 지출액 중 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7%에 불과하며, 특정 국가(피지)에 약 60%가 편중되어 있음.⁹⁹⁾
- ODA 지원 확대를 통한 태도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¹⁰⁰⁾ 또는 EDPF(경제협력증진자금)¹⁰¹⁾를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호주의 AIFFP와 연계하여 다자간 ODA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태도국의 주요 인프라 구축에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임.¹⁰²⁾

99) OECD Stat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2).

100)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 지원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함. EDCF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1).

101) EDPF(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는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금융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중장기 조건으로 제공되며 EDCF보다 금리가 높지만 EDCF와 달리 비구속성 양허성 자금임.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검색일: 2022. 8. 11).

102)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홈페이지(검색일: 2022. 8. 11).

- 호주 AIFFP와 한국 EDCF·EDPF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호주 AIFFP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태도국과의 개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EDPF는 비구속성으로 수원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태도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은 만큼, 태도국의 오랜 협력국인 호주와 기후변화 관련 ODA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한국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사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으나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한국의 타지역 내 ODA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호주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아울러 한국은 태도국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된 PBP에 참여하여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영국과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KIEP**

부록

태평양 도서국 개황

구분	국가	인구 (명)	GDP (PPP, 십억 달러)	실질 GDP (증가율, %)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수교 현황 (중국/ 대만)	국토 면적 (km ²)	EEZ (km ²)
마이크로 네시아	키리바시	114,189	0.27	1.5	13.3	106.9	중국 수교	811	3,441,810
	마이크로네 시아 연방	101,009	0.39	-3.2	231.9	530.4		702	2,996,419
	마셜제도	79,906	0.24	-1.5	1,310.6	14,597.5	대만 수교	181	1,990,530
	팔라우	21,695	0.32	-17.1	3.8	213.2		459	603,978
멜라네시아	파푸아뉴기니	9,593,498	36.69	1.7	7,439.0	5,316.9	중국 수교	452,860	2,402,288
	피지	943,737	9.86	-4.0	750.1	2,210.9		18,274	1,282,978
	솔로몬제도	702,694	1.71	-0.2	354.2	574.4		27,986	1,589,477
	바누아투	308,043	0.85	0.5	71.8	260.5		12,189	663,251
	나우루	9,811	0.15	1.6	225.6	93.4	대만 수교	21	308,480
폴리네시아	사모아	206,179	1.25	-8.1	27.0	370.0	중국 수교	2,821	127,950
	투발루	11,544	0.05	2.5	29.0	80.1	대만 수교	26	749,790
	통가	105,517	0.67	-0.7	460.3	157.2	중국 수교	717	659,558
	니우에	2,000	0.01	-	-	-		260	316,584
	쿡제도	8,128	0.3	-	-	-		236	1,960,027

주: GDP(PPP)는 2020년 추정치(니우에는 2003년, 쿡제도는 2016년)이며, 실질 GDP(증가율)는 2021년 수치임.

자료: 인구, GDP(PPP), 국토 면적은 CIA(검색일: 2022. 7. 27); 실질 GDP(증가율)는 IMF WEO(검색일: 2022. 8. 16); 수출 및 수입은 IMF DOTS(검색일: 2022. 8. 16); EEZ 면적은 Vivid Map(검색일: 2022. 7. 26).

참고문헌

[국문자료]

- 박영준. 2013.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평양 쟁탈전: 한국, 일본,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국가 외교」.
- 외교부. 2014. 「태평양도서국 개황」.
- 정지원, 권율, 정지선, 박수경,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 박진희, 최재희, 김상규, 김용신, 양철, 정재홍, 황태연. 2019.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 중심으로」.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9-6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대송. 2013. 「일본의 해양 정책 -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5(4), pp. 355~371. 해양과학기술원.

[영문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The Freely Associated States and Issues for Congress."
- _____. 2022. "The Pacific Islands."
- Hanich, Quentin A. and Ben M. Tsamenyi. 2006.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Pacific Developing Island States - who really gets all the fish?" University of Wollongong.
- Searight, Amy, Brian Harding, and Kim Mai Tran. 2019. "Strengthening the U.S.-Pacific Islands Partnership." CSIS.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2021. "Tuna Fishery Yearbook 2020."

[중문자료]

- 秦升. 2019. 「以发展援助为支点打造新时期南南合作的典范——中国与太平洋岛国关系发展的回顾与展望」. 『海外投资与出口信贷』, 第5期.
- 陈晓晨, 常玉迪. 2019. 「中国与太平洋岛国共建“一带一路”的价值、瓶颈与举措」.
-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中国驻巴布亚新几内亚大使馆经济商务处,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2021.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巴布亚新几内亚」.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 2021. 「2020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언론/보도자료]

- "Australia election produces South Pacific rethink." 2022. Oxford Analytica. (May 10).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70090/Australia-election-produces-South-Pacific-rethink>(검색일: 2022. 8. 31).
- "Australia pledged to 'step up' in the Pacific amid growing Chinese influence, but are we on track?" 2022.

ABC News. (January 18). <https://www.abc.net.au/news/2020-01-18/australia-pacific-step-up-in-review/11863150>(검색일: 2022. 8. 3).

“Australia commits to Pacific islands defence training as China plans rival meet.” 2022. Reuters. (June 28).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commits-pacific-islands-defence-training-china-seeks-rival-meeting-2022-06-28/>(검색일: 2022. 8. 3).

Benjamin Charlton. 2022. “Pacific Islands will resist Chinese influence.” Oxford Analytica. (June 22).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70994/Pacific-Islands-will-resist-Chinese-influence/>(검색일: 2022. 7. 30).

“China funds Solomon Islands’ telecoms deal after signing security pact.” 2022. Financial Times. (August 19). <https://www.ft.com/content/39ca5645-fd50-48a1-9f7f-e58170e0ad1c>(검색일: 2022. 8. 26).

“China is pursuing a Pacific-wide pact with 10 island nations on security, policing and data – report.” 2022. The Guardian. (May 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y/25/china-is-pursuing-a-pacific-wide-pact-with-10-island-nations-on-security-policing-and-data-report>(검색일: 2022. 8. 9).

“China wants 10 Pacific Nations to sign a major cooperation agreement.” 2022. The Diplomat. (May 26). <https://thediplomat.com/2022/05/china-wants-10-pacific-nations-to-sign-a-major-cooperation-agreement/>(검색일: 2022. 8. 10).

“China, Pacific Islands unable to reach consensus on regional pact.” 2022. Reuters. (May 3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hosts-pacific-islands-meeting-fiji-security-ties-focus-2022-05-30/>(검색일: 2022. 8. 8).

“China’s Pacific Push Is Backfiring.” 2022. Foreign Policy. (July 26). <https://foreignpolicy.com/2022/07/26/china-pacific-islands-push-backfiring/>(검색일: 2022. 8. 3).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Australia. “Improving East Micronesia telecommunications connectivity.” <https://www.foreignminister.gov.au/minister/marise-payne/media-release/improving-east-micronesia-telecommunications-connectivity/>(검색일: 2022. 7. 4).

“Pacific forum signals reset with Australia, U.S. as China hovers.” 2022. Nikkei Asia. (July 14).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Pacific-forum-signals-reset-with-Australia-U.S.-as-China-hovers/>(검색일: 2022. 7. 20).

“Solomon Islands-China pact is worst policy failure in Pacific since 1945, Labor says.” 2022. The Guardian. (April 20).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2/apr/19/china-and-solomon-islands-sign-security-deal-chinese-foreign-ministry-says/>(검색일: 2022. 8. 3).

The White House. “Fact Sheet: Vice President Harris Announces Commitments to Strengthen U.S. Partnership with the Pacific Island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7/12/fact-sheet-vice-president-harris-announces-commitments-to-strengthen-u-s-partnership-with-the-pacific-islands/>(검색일: 2022. 7. 29).

_____. “Readout of Senior Administration Travel to Hawaii, Fiji, Papua New Guinea, and Solomon Island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22/readout-of-senior-administration-travel-to-hawaii-fiji-papua-new-guinea-and-solomon-islands/>(검색일: 2022. 8. 1).

_____. “Statement by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

- ents-releases/2022/06/24/statement-by-australia-japan-new-zealand-the-united-kingdom-and-the-united-states-on-the-establishment-of-the-partners-in-the-blue-pacific-pbp/(검색일: 2022. 8. 4).
- U.S. Department of State. "U.S. Engagement in the Pacific Islands: UN General Assembly Update." <https://2017-2021.state.gov/u-s-engagement-in-the-pacific-islands-un-general-assembly-update/index.html>/(검색일: 2022. 7. 28).
- _____. "Announcing the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ompact Negotiations." <https://www.state.gov/announcing-the-special-presidential-envoy-for-compact-negotiations/>/(검색일: 2022. 8. 1).
- _____. "The United States Partners with Australia and Japan to Expand Reliable and Secure Digital Connectivity in Palau." <https://2017-2021.state.gov/the-united-states-partners-with-australia-and-japan-to-expand-reliable-and-secure-digital-connectivity-in-palau/index.html>/(검색일: 2022. 7. 4).
- _____. "U.S. Engagement in the Pacific Islands: 2020 Pacific Pledge." <https://2017-2021.state.gov/u-s-engagement-in-the-pacific-islands-2020-pacific-pledge/index.html>/(검색일: 2022. 7. 28).
-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and Agency Leaders of Australia, India, Japan, and USA Agreed to Enhance Collaboration to Overcome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hallenges Facing Indo-Pacific Region." <https://www.dfc.gov/media/press-releases/development-finance-institution-and-agency-leaders-australia-india-japan-and/>/(검색일: 2022. 8. 3).
- "US, Australia launch major Pacific counter-bid to China's rising influence." 2022. The Sydney Morning Herald. (July 23). <https://www.smh.com.au/world/oceania/us-australia-launch-major-pacific-counter-bid-to-china-s-rising-influence-20220712-p5b12f.html>/(검색일: 2022. 8. 5).
- "United States and China set to be excluded from Pacific Islands Forum meeting to avoid 'distraction'." 2022. WEP News. (June 24). <https://wepnews.com/united-states-and-china-set-to-be-excluded-from-pacific-islands-forum-meeting-to-avoid-distraction/>/(검색일: 2022. 8. 9).
- "Why the sparsely-populated South Pacific islands have become the next US-China contest." 2022. CNN. (June 6). <https://edition.cnn.com/2022/06/06/asia/china-pacific-islands-wang-yi-intl-hnk/index.html>/(검색일: 2022. 8. 9).
- 「中国拟在7年内夺第2岛链制海权 变东海为内海」. 2013. 『环球网』. (6月 25日). <https://mil.huanqiu.com/article/9CaKr nJB27q>/(검색일: 2022. 8. 22).
- 「中华人民共和国和所罗门群岛建立外交关系」. 2019. 『新华网』. (9月 21日). http://www.xinhuanet.com/2019-09/21/c_1125023197.htm/(검색일: 2022. 8. 22).

[인터넷 자료]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sfnet/222585969572>/(검색일: 2022. 8. 11).
- 김영선. 2022. 「중국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동향」.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518&mid=a&board_id=21&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검색일: 2022. 8. 23).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index/>/(검색일: 2022. 8. 11).
- 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8. 30).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7/302276/4127455/index.html>(검색일: 2022. 8. 23).
- Australian Government o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artnerships for Recovery: Australi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oda-budget-summary-2022-23.pdf>(검색일: 2022. 8. 2).
-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AIFFP) 홈페이지. <https://www.aiffp.gov.au/about>(검색일: 2022. 8. 3).
-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world/>(검색일: 2022. 7. 27~28).
- IMF 홈페이지. "World Economic Outlook(WEO)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April/select-country-group/>(검색일: 2022. 8. 16).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id=1390030341854>(검색일: 2022. 8. 16 ~ 30).
- Lowy Institute Pacific Aid Map 홈페이지. <https://pacificaidmap.lowyinstitute.org/>(검색일: 2022. 8. 5).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 "Why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re important to Japan?"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spf/palm2003/relation.html/>(검색일: 2022. 7. 28).
- _____. "The Ninth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9)." https://www.mofa.go.jp/a_o/ocn/page3e_001123.html/(검색일: 2022. 8. 4).
- OECD Stat. 홈페이지.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22. 8. 8).
- Pacific Islands Forum(PIF) 홈페이지. "RELEASE: US \$1.08m for Pacific in China-Pacific Islands Forum annual development cooperation ceremony." <https://www.forumsec.org/2022/08/25/release-us-1-08m-for-pacific-in-china-pacific-islands-forum-annual-development-cooperation-ceremony/>(검색일: 2022. 8. 26).
- _____. "The Pacific Islands Forum." <https://www.forumsec.org/who-we-arepacific-islands-forum/>(검색일: 2022. 7. 25).
- Google Map 홈페이지. <https://www.google.com/maps>(검색일: 2022. 8. 19).
- Vivid Maps 홈페이지. <https://vividmaps.com/>(검색일: 2022. 7. 26).
- 广东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 2022. 「广东省与太平洋岛国合作成果清单」. (5월 25일). http://www.gdfao.gov.cn/wsd/conten/post_975962.html(검색일: 2022. 8. 31).
- 中国政府网. 2006. 「加强互利合作 实现共同发展——在“中国—太平洋岛国经济发展合作论坛”首届部长级会议开幕式上的讲话」. (4월 5일).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291940.htm(검색일: 2022. 8. 18).
- _____. 2019. 「外交部：高度赞赏基里巴斯与台湾“断交”并将同中国复交的决定」. (9월 20일). http://www.gov.cn/xinwen/2019-09/20/content_5431727.htm(검색일: 2022. 8. 22).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 「中国同太平洋岛国论坛的关系」. http://bbs.fmprc.gov.cn/wjb_673085/zzjg_673183/bmdyzs_673629/dqzz_673633/tpydg_673635/gx_673639/(검색일: 2022. 8. 26).
- _____. 2022. 「2022年4月19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4월 19일).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204/t20220419_10669711.shtml(검색일: 2022. 8. 25).
- _____. 2022. 「2022年4月20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4월 20일). https://www.mfa.gov.cn/fyrbt_

673021/jzhsl_673025/202204/t20220420_10670501.shtml(검색일: 2022. 8. 25).

_____. 2022. 「2022년4월2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4월 25일).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204/t20220425_10673513.shtml(검색일: 2022. 8. 25).

_____. 2022. 「王毅：美国“印太战略”必然是一个失败的战略」. (5월 22일). https://www.mfa.gov.cn/wjbzhd/202205/t20220522_10690865.shtml(검색일: 2022. 8. 22).

_____. 2022. 「中国—太平洋岛国合作事实清单」. (5월 24일). https://www.fmprc.gov.cn/zyxw/202205/t20220524_10691894.shtml(검색일: 2022. 8. 18).

_____. 2022. 「广东、山东、福建三省发布与太平洋岛国合作成果清单」. (5월 25일). https://www.mfa.gov.cn/wjbxw_new/202205/t20220525_10692440.shtml(검색일: 2022. 8. 31).

_____. 2022. 「王毅谈中国发展同太平洋岛国关系的“四个坚持”」. (5월 27일). https://www.mfa.gov.cn/wjbz_673089/bzzj/202205/t20220527_10693325.shtml(검색일: 2022. 8. 18).

_____. 2022. 「王毅：中国和发展中国家实现共同发展繁荣将使世界更加公平、和谐、稳定」. (5월 30일).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bzzj/202205/t20220530_10694572.shtml(검색일: 2022. 8. 18).

_____. 2022. 「王毅：中国和太平洋岛国的全面战略伙伴关系必将行稳致远」. (5월 30일).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bzzj/202205/t20220530_10694559.shtml(검색일: 2022. 8. 23).

_____. 2022. 「王毅：中国愿打造同岛国合作的六个新平台」. (5월 30일).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bzzj/202205/t20220530_10694568.shtml(검색일: 2022. 8. 24).

_____. 2022. 「中国同基里巴斯的关系」. (6월).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dyz_681240/1206_681418/sbgx_681422/(검색일: 2022. 8. 22).

_____. 2022. 「践行大小国家一律平等外交理念 助力太平洋岛国加快发展振兴」. (6월 5일). https://www.mfa.gov.cn/wjbzhd/202206/t20220605_10698766.shtml(검색일: 2022. 8. 24).